

이슈페이퍼 2013-10

0-3세 영유아 연령에 따른
양육 특성의 변화와 시사점
-한국아동패널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김은설

차례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패널 조사 방법	2
가. 조사 대상	2
나. 조사 방법	3
다. 측정 변인	3
라. 분석 방법	4
3. 조사 결과	4
가. 아동발달 특성	4
나. 부모 특성	6
다. 가정 환경 특성	10
라.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13
4. 요약 및 정책 제언	18
가. 요약	18
나. 정책 제언	19
참고문헌	21

표 차례

〈표 1〉 권역별 초기 패널 수	2
〈표 2〉 연도별 및 지역별 조사 참여 패널 가구 수	2
〈표 3〉 패널 중단 조사의 측정 변인	3
〈표 4〉 아동의 체중 및 신장	5
〈표 5〉 아동의 정서 및 활동성	6
〈표 6〉 부모의 취업 상태	6
〈표 7〉 취업 중인 부모의 종사상 지위	7
〈표 8〉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8
〈표 9〉 어머니의 우울 정도	8
〈표 10〉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 정도	9
〈표 11〉 부모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어머니 응답)	9
〈표 12〉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	10
〈표 13〉 월평균 가구 소득	11
〈표 14〉 월평균 가구 총지출	11
〈표 15〉 월평균 자녀관련 지출	11
〈표 16〉 부부의 결혼만족도	12
〈표 17〉 부부 갈등	13
〈표 18〉 아동을 주로 돌보는 사람	13
〈표 19〉 주 이용 육아지원서비스	14
〈표 20〉 개인대리양육자와의 관계	14
〈표 21〉 개인대리양육 이용 시간	15
〈표 22〉 개인대리양육 이용 비용	15
〈표 23〉 육아지원기관 이용 유형	16
〈표 24〉 육아지원기관 이용 빈도	16
〈표 25〉 육아지원기관 이용 시간	17
〈표 26〉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이슈페이퍼는 2008년 이래 육아정책연구소가 매년 생산해 오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 0~3세까지 4년 동안 우리나라 영유아가 성장, 발달하고 있는 양육환경을 시간에 따라 비교·분석한 결과에 대한 보고임.
 -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2006~2007년까지 2년 동안 준비과정과 예비조사를 거쳐 2008년 0세 신생아 2,078명을 패널로 선정하고 1차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됨. 이후 매해 아동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 사회 환경 등의 측정을 내용으로 하는 패널 조사가 주 양육자 및 아동, 지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됨. 2013년 5월 현재 5세 유아 대상 조사를 실시함.
 -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전국의 아동이 출생 이후 성장하면서 나타내는 발달특성, 양육과정, 보육·교육 기관 경험, 정부정책의 변화와 그 영향 등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있음.
-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 제시하는 많은 변인 중 본 연구는 양육 특성, 즉 부모 특성, 가정 환경 및 양육 특성,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 특성 등의 측면에서 종단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통해 변화하는 양육 경향을 분석하고 국가 정책 수립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둠.
 - 각 변인의 값은 0~3세 연령별 점수가 모두 제시되고 있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여 제시하였고 시간에 따른 결과에 차이가 있어 의미를 유추해 볼 만한 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양육 특성에 해당하는 변인으로는 부모특성으로서 근로특성 및 부모의 심리적 특성, 가정환경 특성으로서 가정 경제, 아버지 양육 참여 등을,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나 비용 등 육아서비스 변인의 변화를 살펴보고, 아동 발달 특성도 추가적으로 포함하였음.

2. 패널 조사 방법

가. 조사 대상

-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패널은 2,078명의 2008년 4월 이후 출생 아동과 그 부모 또는 주 양육자,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함.
 - 패널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연간 분만 건수가 500 이상인 산부인과 병원 총 30개를 표집하고 2008년 4~7월까지 3개월간 그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를 면접하여 패널 연구 참여 동의를 받은 결과로 구축됨. 권역별 최초 구축 기본 패널 수는 다음의 <표 1>과 같음.

<표 1> 권역별 초기 패널 수

권역	지역	사례수	단위: 명, % 비율
서울/경인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996	47.9
충청/강원권	대전, 충청북도, 충청남도	270	13.0
경북권	대구, 경상북도	243	11.7
경남권	부산, 울산, 경상남도	346	16.7
전라권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223	10.7
계		2,078	100.0

자료: 김은설 외(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육아정책연구소.

- 최초의 2,078 패널 가구는 이후 해를 거듭하면서 조사 참여에 유실율이 발생하여 2009년은 1,904가구, 2010년 1,802가구, 2011년 1,754가구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경과를 보임. <표 2>는 각 연도별, 지역별 조사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음.

<표 2> 연도별 및 지역별 조사 참여 패널 가구 수

연도	아동연령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계	단위: 가구, % 참여율
2008년	0세	992	349	240	271	226	2,078	100
2009년	1세	879	320	221	271	213	1,904	91.6
2010년	2세	839	307	210	253	193	1,802	86.7
2011년	3세	809	299	210	243	193	1,754	84.4

자료: 김은설 외(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육아정책연구소.

나. 조사 방법

- 조사는 우편조사와 방문조사, 웹조사로 이루어져 있음.
 - 우편조사는 패널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질문지를 우편으로 송부한 후 한달 정도 경과한 다음 조사원이 면담 조사를 위해 패널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응답된 질문지를 회수함.
 - 방문조사는 조사원이 각 패널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에 대해서는 도구를 이용해 신체 발달을 측정하고 언어발달 등 일부 수행검사를 실시함. 또한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을 통해 일반적 사항과 부모, 가정환경, 부모면담식 발달검사 등을 수행함.
 - 웹조사는 아동이 2세 이후 추가 실시된 조사 방식으로, 패널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육아지원기관의 담임 교사가 기관 및 아동의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진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직접 응답하게 하는 방법임. 가정 방문조사가 완료된 후 부모의 동의를 받아 교사 대상 웹조사가 실시됨. 본 연구에서는 웹조사 변인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다. 측정 변인

- 패널 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조사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해당 조사의 내용 즉, 측정 변인은 크게 특성별로 아동발달, 부모 특성, 가정환경,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특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각 특성별 구체적 측정 변인은 다음의 <표 3>과 같음.

<표 3> 패널 종단 조사의 측정 변인

특성 분류	영역	측정 변인
아동 발달	신체	체중, 신장
	정서	기질(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일과활동	하루일과 활동별 시간
부모	근로 특성	취업 여부, 종사상 지위
	부모의 심리적 특성	모의 자기효능감, 자존감, 우울
	양육 특성	부의 양육참여, 모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가정 환경	경제적 수준	가구 소득, 거주 주택 유형
	부부 관계 특성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서비스 특성	이용 서비스 유형, 이용 시간, 비용

라. 분석 방법

- 관련 변인을 고려한 가중치 산출 및 부여를 통해 모집단 특성 추정치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도별 비교 분석함.
 - 조사 대상인 2천여 패널 아동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패널 집단 그 자체의 변화를 보는 것만으로는 분석 목적으로서 적절하지 않음. 즉 우리나라 아동 전체를 보여주는 대표치로 수정되어야 함.
 - 패널의 표집방법, 지역, 연도별 참여 여부 등 오차 유발 변인을 모두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다시 전국 아동 인구, 연간 출생아 수 등을 투입, 모수 추정을 위한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수치는 패널에 해당하는 표집 통계치가 아닌, 모수 추정치임.
 - 우리나라 영유아 전체를 포함하는 모수 추정치에 대한 제시이므로, 해당 측정 변인에 대한 사례수는 의미가 없어 제시하지 않음. 또한 모수(추정)치를 사용함으로써 연도별 평균차 통계분석(F 검정) 또한 수행하지 않았음.
- 기본적인 자료 분석은 SPSS ver.20에 의함.

3. 조사 결과

- 조사 결과는 아동, 부모, 가정,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특성이라는 측면 각각에서 살펴보고자 함.

가. 아동발달 특성

1) 신체 발달

- 연속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영유아는 신체발달이 만 0-3세 사이에 꾸준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4년간의 연속적 측정 결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아동은 출생 시 평균 3.27kg으로 태어나고 이후 1년 간 약 10kg의 체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3배 가까이 늘어난 결과를 보이며, 이후 만 3세까지 해마다 약 2kg씩 증가하고 있음. 2011년 조사된 만 3세의 평균 체중은 14.77kg으로 출생 시에 비해 11.5kg이 증가함.

- 초기에 50.34cm이었던 신장이 1세에는 77.23cm로 생후 1년간 1.5배 증가한 바, 이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소아과학회(2007)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임. 아동들은 1세에서 2세까지는 약 11cm, 3세에는 약 8cm 성장함.

〈표 4〉 아동의 체중 및 신장

구분	단위: kg, cm			
	0세	1세	2세	3세
체중				
평균	3.27	10.12	12.55	14.77
표준편차	.41	1.12	1.41	1.71
최소값	1.20	6.00	9.00	10.0
최대값	4.90	15.00	17.00	21.0
신장				
평균	50.34	77.23	88.82	96.72
표준편차	2.62	4.12	3.84	3.76
최소값	29.4	60.00	75.00	85.0
최대값	60.0	100.00	102.00	111.0

2) 정서 발달

- 아동의 정서 발달은 한국아동패널에서 기질의 측정치를 통해 알 수 있음. 측정된 기질은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으로 구성됨. 정서성은 아동이 잘 우는 편인지, 쉽게 기분이 나빠지는지, 화를 격하게 표현하는지 등을 의미하며, 활동성은 움직임의 정도를 어머니가 판단한 것임. 사회성은 아동이 수줍음을 타는 정도나 사람을 잘 사귀는 정도를 뜻함. 패널 조사에서는 사회성은 만 2세가 되어서야 측정에 포함함.
 - 4년간 정서성의 변화를 보면, 0, 1세에 2.72점이었으나 2, 3세가 되면서 2.8 이상으로 점수가 높아져,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1세와 2세 사이에 조금 많아짐을 알 수 있음.
 - 활동성은 0세와 1세 사이에서 5점 척도 기준 0.2점(5.3% 상승) 정도 증가함. 그러나 2세에서 3세가 되면서 다시 0.1점 정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사회성은 2, 3세 간 차이가 없음.

〈표 5〉 아동의 정서 및 활동성

구분	단위: 점			
	0세	1세	2세	3세
정서성				
평균	2.72	2.72	2.84	2.87
표준편차	.61	.63	.61	.62
활동성				
평균	3.73	3.91	3.91	3.82
표준편차	.55	.57	.58	.60
사회성				
평균	-	-	3.01	3.00
표준편차	-	-	.23	.23

주: 점수는 5점 척도 기준임.

나. 부모 특성

1) 근로 특성

- 어머니의 취업(학업 포함) 상태를 살펴보면, 출산시기 29% 취업모였으나 1세 31.3%, 2세 32.9%, 3세 38.5%로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즉, 신생아기인 0세 시기에 비해 자녀가 유아기에 접어드는 3세에는 거의 31.8%의 취업율을 증가율이 나타났음.

〈표 6〉 부모의 취업 상태

구분	어머니				아버지			
	0세	1세	2세	3세	0세	1세	2세	3세
취업중	29.2	31.3	32.9	38.5	98.5	98.1	97.5	98.3
학업중	0.8	0.2	0.2	0.6	0.4	0.3	0.3	0.1
미취학/미취업	70.0	68.4	66.9	60.9	1.1	1.6	2.1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취업 중인 부모의 종사상 지위는 영유아기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을 보임. 어머니의 경우 출산 직후인 자녀 0세 시기에는 정규직이 86%를 보였으나 자녀가 커감에 따라(저자 주: 둘째 자녀의 출산과 맞물릴 수도 있음) 정규직/상용직 비율이 점차 낮아져 자녀가 만3세에 이르러서는 67.1%만이 정규직에 머물고 있음. 즉, 0세 정규직 비율에 비해 4년간 22%감소율을 보임.

- 정규직 감소 비율에 반해 비정규직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자영업자의 비율이 14.1%로, 자녀 3세에 매우 높게 나타남.
- 앞서 <표 6>에서 보듯이 아동의 연령이 높아갈수록 어머니의 취업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알 수 있으나 이들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임시직 일차리나 자영업을 하게 되는 양상을 볼 수 있음.
- 아버지의 경우에도 자녀의 연령 증가와 더불어 정규직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7〉 취업 중인 부모의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어머니				아버지			
	0세	1세	2세	3세	0세	1세	2세	3세
정규직/상용직	86.0	80.8	70.0	67.1	81.9	83.6	72.4	74.4
비정규직 중 임시직	4.9	7.4	12.0	12.4	4.2	3.5	2.7	3.1
비정규직 중 일용직	1.4	2.4	1.6	1.2	2.2	2.7	2.8	3.3
고용주/자영업자	-	0.0	0.0	14.1	0.0	10.3	20.7	7.4
무급가족 종사자	-	7.3	12.7	5.2	0.0	0.0	1.1	10.9
기타	7.7	2.1	3.8	-	11.7	0.0	0.4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3세에 기타를 삭제함.

2) 심리적 특성

가)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 패널 조사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은 5점 척도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정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효능감을 가졌음을 의미함. 4년간의 자기효능감 변화 추이를 보면 자녀가 만 2세까지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다가 3세가 되어서는 조금 낮아지는 긍정적 변화를 보임.
-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의미함. 자녀 연령 0~3세 사이 점수변화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줌.

- 자녀가 0, 1세에서는 2.5점 정도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2세에서 3.48, 3세에서 3.62점을 보여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연령과 더불어 증가되어 감을 알 수 있음.

〈표 8〉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구분	단위: 점			
	0세	1세	2세	3세
자기효능감				
평균(표준편차)	2.22(.69)	2.31(.69)	3.68(.72)	2.36(.72)
자아존중감				
평균(표준편차)	2.52(.21)	2.53(.21)	3.48(.41)	3.62(.59)

나) 우울

- 4년간의 어머니 우울의 점수는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다수가 정상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세에는 평균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아졌고 특히 정상범위를 벗어난 중도 우울의 비율이 높아진 결과를 보임.
 - 자녀가 2세까지는 70%이상의 어머니가 우울의 정상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이 심한 수준이라 볼 중도 집단은 5.4~6.6%였음. 그러나 자녀 3세에는 정상 집단으로 분류된 경우가 68.5%로 1세에 비해 4%p가 떨어졌고 반면 중도 우울이 8.7%로 3.3%p가 증가됨.
 - 한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경우에는 둘째 자녀 출생 등 가족 내외 변화를 살펴보고 우울감의 변화 원인을 유추해 볼 필요가 있음.

〈표 9〉 어머니의 우울 정도

구분	단위: 점, %			
	0세	1세	2세	3세
우울정도				
평균(표준편차)	1.94(.71)	1.92(.69)	1.96(.70)	1.40(.64)
우울 임상집단				
정상	71.5	72.5	70.2	68.5
경도/중등도	22.0	22.1	23.2	22.8
중도	6.5	5.4	6.6	8.7
계	100.0	100.0	100.0	100.0

3) 양육 특성

가) 부의 자녀양육 참여

-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를 어머니의 보고로 조사한 결과, 5점 척도에서 평균 3.6~3.73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자녀의 연령에 따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그러나 자녀 2세까지는 조금씩 참여도가 늘어나다가 3세에는 다시 1세 수준으로 낮아진 경향을 보임.

〈표 10〉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 정도

구분	0세	1세	2세	3세
평균	3.60	3.64	3.73	3.60
표준편차	.80	.88	.83	.80

- 아동패널 생산 자료의 한계로 모든 연령에서 부모 각각의 양육참여시간 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자녀 2세와 3세에서 부모의 양육참여시간을 비교해보면, 평일 양육참여시간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4배 이상이었고 주말도 거의 2배에 가까웠음.
- 아버지 양육참여 시간을 보면, 2세에서 평일 기준 1시간 20분을 자녀와 보내고 3세에는 조금 늘어난 1시간 32분을 쓰는 것으로 조사됨. 주말은 2세 4시간 5분, 3세 4시간 55분으로 자녀 연령 증가와 육아참여시간 증가가 함께 나타남.
 - 그러나 표준편차가 3시간이 넘는다는 점을 볼 때 주말에도 1시간여만 자녀와 보내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11〉 부모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어머니 응답)

구분	어머니		아버지	
	2세	3세	2세	3세
주중				
평균	5시간 59분	5시간 17분	1시간 20분	1시간 32분
표준편차	4시간 10분	3시간 9분	1시간 18분	1시간 33분
주말				
평균	7시간 40분	9시간 10분	4시간 5분	4시간 53분
표준편차	3시간 51분	3시간 38분	2시간 55분	3시간 8분

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

-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긍정적 양육행동의 정도를 측정하는 점수로 표현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임을 보여줌. 0~3세까지 4년간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점수를 보면, 0세에서 1세, 1세에서 2세 사이에 조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2세와 3세간에는 차이가 없음.

〈표 12〉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

구분	단위: 점			
	0세	1세	2세	3세
양육실제				
평균(표준편차)	4.05(.50)	3.89(.49)	3.80(.51)	3.80(.49)
양육스트레스				
평균(표준편차)	2.75(.62)	2.73(.64)	2.79(.63)	2.77(.69)

- 양육스트레스는 4년간의 측정치 모두가 2.73~2.77점 사이에 있어 양육스트레스의 변화가 크지 않음. 비교적 차이가 큰 1세와 2세간 양육스트레스 증가율은 2.2%에 지나지 않음.

다. 가정 환경 특성

1) 경제적 환경

가) 월평균 가구 소득

- 자녀가 만 3세가 되기까지 월평균 가구 소득을 비교하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특히 자녀가 3세가 되었을 때 2세 때에 비해 상당한 차이로 증가한 액수를 보임.
- 3세에 평균 가구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어머니의 취업이 3세에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됨. 또한 자녀가 자라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아버지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 가구 간 평균에 대한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남은 소득 분포가 양분됨을 알 수 있게 함. 그럼에도 중위값은 이전 연도에 비해 80만원 가량 늘어남.

〈표 13〉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단위: 만원			
	0세	1세	2세	3세
평균	318.16	337.36	360.07	508.96
표준편차	151.93	267.25	262.24	663.66
중위값	300	300	300	380

나) 가구의 월간 총 지출

- 가구의 월간 총지출은 0세(2008년)에는 243만 6천원이었으나 3세(2011년)에는 212만 8천원으로 30만원 가량이 줄어듦. 전체적인 경향으로는 2세까지 상당히 지출이 증가하다가 3세에 갑자기 떨어진 결과를 보이는 것임.

〈표 14〉 월평균 가구 총지출

구분	단위: 만원			
	0세	1세	2세	3세
평균	243.60	278.43	289.29	212.76
표준편차	122.55	287.54	243.88	106.92
중위값	220	235	250	200

다) 가구의 월간 총 자녀 관련 지출

- 소비성 지출 중 아동을 위해 소비하는 지출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0세에서 2세까지는 점점 감소하다가 3세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0세에 61만원이었던 자녀 관련 지출액이 1세에는 50만3천원, 2세에는 48만 8천원으로 감소되다가 3세에서는 85만5천원으로 이전 해에 비해 36만7천 원이 증가했는 바, 이는 75% 이상의 증가를 의미함.
 - 이같은 경향은 출생 이후 지출되는 초기 양육비용이 점차 줄어들다가 유아기에 이르러 다른 형태의 자녀 관련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표 15〉 월평균 자녀관련 지출

구분	단위: 만원			
	0세	1세	2세	3세
평균	61.12	50.31	48.75	85.46
표준편차	68.54	82.59	56.82	58.05

2) 부모의 부부관계

가) 결혼만족도

- 자녀가 태어나 만 3세가 될 때까지 부부간 결혼만족도의 변화를 보면 어머니나 아버지 모두 만족도 점수가 대체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어머니와 아버지 간 비교에서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항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녀 1세에 아버지의 만족도에 비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89%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임.
 - 자녀 연령별 변화에서는 비슷하거나 완만한 차이를 보이다가 자녀 3세에서 결혼만족도가 어머니는 0.13점, 아버지는 0.17점이 각각 떨어짐. 백분율로는 2세에 비해 3세에 어머니 및 아버지 각각 3.4%와 4%가 하락한 결과임. 이는 어머니의 우울 점수 경향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는 변화임.

〈표 16〉 부부의 결혼만족도

단위: 점

구분	어머니				아버지			
	0세	1세	2세	3세	0세	1세	2세	3세
평균	3.81	3.86	3.85	3.72	4.28	4.28	4.21	4.04
표준편차	.76	.79	.77	.73	.68	.71	.70	.65

나) 부부갈등

- 부부갈등의 점수를 보면 문제시될 만큼 갈등 점수가 높지는 않으나, 자녀의 연령 증가와 더불어 부부갈등 점수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앞서 살펴본 결혼만족도 결과와는 달리, 부부갈등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간 점수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으며, 자녀 0세에 보였던 부모간 차이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비슷하게 인식하는 모습으로 변화함.
 - 2세 이하의 경우 자녀연령변화에 따라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부부갈등 인식 점수가 더 큰 폭으로 높아지는 경향임.

〈표 17〉 부부 갈등

구분	어머니				아버지			
	0세	1세	2세	3세	0세	1세	2세	3세
평균	1.99	2.03	2.09	2.10	1.88	2.01	2.08	2.09
표준편차	.78	.77	.77	.77	.69	.71	.74	.75

단위: 점

라.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1)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 아동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연령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음. 0세에서는 84.4%가 부모였으나 1세에는 72.3%, 2세에는 48.1%, 3세에는 17.3%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고 부모 이외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반대로 점차 높아져 4차년도인 만3세의 경우는 82.7%가 부모 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대로, 돌보아주는 개인 서비스나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0세 15.6%에서 연령이 높아갈수록 점차 높아져 3세에는 82.7%가 부모 이외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세에서 과반수를 넘고 3세는 다수라고 할 수 있음.

〈표 18〉 아동을 주로 돌보는 사람

구분	단위: %			
	0세	1세	2세	3세
부모(주로 어머니)	84.4	72.3	48.1	17.3
부모 외의 육아지원서비스	15.6	27.7	51.9	82.7
계	100.0	100.0	100.0	100.0

- 부모가 아닌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주로 이용하는 육아지원서비스는 0세에는 개인대리양육자가 압도적 다수였으나 연령이 높아지면서 차츰 낮아져 3세에는 1.4%에 머물렀고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급속도로 높아져 0세 2%에서 1세 10%, 2세 41%, 그리고 3세에는 전체의 75.6%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음. 이 외에 유치원, 학원, 대리양육과 어린이집 병행 등이 3세에 차츰 나타나고 있음.

〈표 19〉 주 이용 육아지원서비스

구분	단위: %			
	0세	1세	2세	3세
전체	15.6	27.8	51.7	82.8
개인대리양육자	13.5	16.8	9.5	1.4
어린이집	2.0	10.1	41.2	75.6
유치원	-	-	-	1.5
반일제 이상 학원	-	-	0.2	1.2
기타기관 (선교원 등)	-	-	0.2	0.2
개인대리양육자 + 어린이집 병행	0.1	0.9	0.6	2.6
개인대리양육자 + 유치원 병행	-	-	-	0.2
개인대리양육자 + 반일제 학원 병행	-	-	-	0.1
어린이집 + 기타기관 병행	-	-	-	0.1

주: 3세에 유치원, 개인대리양육자와 반일제 이상학원, 개인대리양육자와 유치원, 어린이집과 반일제 이상학원, 어린이집과 기타기관 보기를 추가함.

2) 개인대리양육

- 개인대리양육에 자녀 돌봄을 의존하는 경우 어떤 개인대리양육자가 있는지를 연령별로 보면 0세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던 친/외조모가 돌보는 경우는 조금씩 줄어들고 미미하게나마 가사/육아 도우미에 의존하는 비율이 2세부터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경향임.

〈표 20〉 개인대리양육자와의 관계

구분	단위: %			
	0세	1세	2세	3세
친할머니	37.6	34.3	38.3	27.4
친할아버지	0.9	0.9	2.1	2.7
외할머니	41.9	46.2	42.0	43.8
외할아버지	0.4	0.0	0.0	0.7
아동의 순위 형제,자매	-	-	-	8.7
기타 친인척	7.1	3.9	5.7	13.3
친구 또는 이웃	-	-	-	0.8
비친인척 육아 도우미	11.6	13.2	8.5	-
가사 및 육아 도우미	0.5	1.5	2.9	2.5
기타	0.0	0.1	0.4	-
계	100.0	100.0	100.0	100.0

주: 비친인척 육아 도우미와 기타 보기를 3세에 삭제함.

-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 평균 이용시간을 보면, 아동 연령이 높아질 수록 이용시간은 줄어들고 특히 3세에는 현격히 줄었음을 알 수 있음.
- 편차가 조금 커지기는 하였으나 3세에는 육아지원기관 이용이 많아지면서 개인대리양육 이용 시간이 줄었다고 볼 수 있음.

〈표 21〉 개인대리양육 이용 시간

구분	단위: 시간			
	0세	1세	2세	3세
평균	12.08	11.38	11.52	8.82
표준편차	3.38	3.07	2.81	4.29
중위값	11.00	11.00	11.50	10.00
최소값	5.50	1.00	2.00	1.00
최대값	22.98	23.97	23.00	23.50

-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데 지급되는 비용(현금+현물 통합 비용)을 보면 0세에서 1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가 3세에는 비용이 10만원 이상 매우 높아졌음을 볼 수 있음.
- 이용 시간과 비용을 <표 21>과 <표 22>를 이용해 함께 해석해보면, 개인대리양육 이용율은 3세에 매우 낮아지고 이용시간도 짧아졌지만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이용비용은 더 많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2〉 개인대리양육 이용 비용

구분	단위: 만원			
	0세	1세	2세	3세
평균	63.62	61.38	62.30	73.66
표준편차	28.51	29.20	31.35	36.73
중위값	60	50	60	70
최소값	5	1	5	15
최대값	170	180	170	170

3) 육아지원기관

가) 기관 유형

- 육아지원기관을 다니는 경우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2세보다는 3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조금 낮아지고 대신 유치원이나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 이용하는 기관 종류가 다양해짐을 볼 수 있음.

〈표 23〉 육아지원기관 이용 유형

구분	단위: %	
	2세	3세
어린이집	98.9	95.1
유치원	-	1.9
영어학원(영어유치원)	-	0.4
놀이학교	0.1	1.6
선교원	0.3	0.5
미술,태권도 등의 각종학원	-	0.3
기타	0.6	0.3
계	100.0	100.0

나) 이용 빈도

-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빈도를 보면 영아기인 0세에는 토요일까지 매일 이용하는 비율이 16.0%였으나 점차 낮아져 3세에는 1.1%에 이르게 되고 반면 금요일까지 이용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져 대부분(98.2%)이 주 5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0세에 나타났던 주중 간헐 이용이 거의 사라진 것 또한 가지 특징임.

〈표 24〉 육아지원기관 이용 빈도

구분	단위: %			
	0세	1세	2세	3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6.0	13.3	3.3	1.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78.1	85.7	96.0	98.2
일주일 내내	0.0	1.0	0.7	0.0
일주일에 며칠만	5.9	0.0	0.0	0.6
계	100.0	100.0	100.0	100.0

다) 기관 이용 시간

-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0세에서 3세까지 이용 시간을 비교해보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아래의 <표 25>는 등하원 시간

을 포함한 이용시간을 보여줌. 각 연령별 기관 이용 아동 수가 다름은 유의해서 해석해야 할 부분임.

- 영아일수록 어머니의 취업 등 돌보아 줄 필요성에 의해 기관보육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가 점차 사회성, 인지 발달 지원 등의 목적으로 단시간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됨.

〈표 25〉 육아지원기관 이용 시간

구분	0세	1세	2세	3세
평균	12시간 27분	8시간 47분	7시간 47분	7시간 23분
표준편차	3시간 15분	2시간 5분	1시간 52분	1시간 33분

라) 이용 비용

-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데 지불되는 비용을 보면, 0세에서 3세까지 꾸준히 평균 비용이 줄어들고 있음. 특히 3세는 19만 8,500원으로 2011년 기준 보육비 지원 단가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표준편차는 연령에 따라 커지고 3세의 최대값도 매우 높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관이 다양해져 비용도 개인별로 많이 차이가 남을 짐작하게 함.
- 2012년부터는 영유아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이 전액 국가지원으로 충당됨으로써 이와 같은 이용 비용에 대한 조사는 만 4세가 대상이 되는 2012년 5차년도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됨.

〈표 26〉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

구분	단위: 만원			
	0세	1세	2세	3세
평균	29.94	28.85	23.36	19.85
표준편차	11.38	12.56	15.11	17.04
중위값	37	31	26	11
최소값	5	3	1	1
최대값	50	60	100	120.0

4. 요약 및 정책 제언

가. 요약

- 본 페이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아동패널이 제공하는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만 0~3세 아동의 육아 실태를 보여주는 변수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측정 변인별로 연령별 비교·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2008년과 2011년 사이 우리나라 3세 이하 영유아는 체중과 신장에서 정상적 신체발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서 발달 측면에서는 2세가 되면서 부정적인 정서 표현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
- 부모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머니의 취업률은 자녀의 연령증가와 더불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자영업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이 연령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우울정도에서 차이를 보임.
 -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도는 자녀 연령에 따라 조금 다른데,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와 좀 더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참여 시간에 비해서는 평일 4배 이상 적어 차이가 남.
- 가정 환경 특성으로서 먼저 경제적 환경에서는, 월평균 가구 소득은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반면 지출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자녀와 관련한 지출비용은 3세를 기준으로 매우 높아짐.
 - 가정 환경 특성 중 부모의 부부관계 경향을 보면, 결혼만족도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낮고 자녀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대체로 만족도는 떨어지고 갈등도는 높아짐.
-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행태를 보면,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바, 0세에 84.4%가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았으나 3세에는 17.3%만이 그러하고 부모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82.7% 중 78.2%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4.3%는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고 있었음. 3세 아동 개인대리양육자의 74%정도가 조부모 중 한 사람인 것으로 나타남.

- 영아에 비해 3세 이상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비용이 낮아지고 이용 시간은 짧아지는 경향을 보임. 0세 영아는 기관 이용율이 2.1%로 낮은 반면, 평균 12시간 이상 장시간을 이용하고 주말이용율이 높으며 이용비용도 3세에 비해 1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비용은 2012년 무상 보육 정책 시행으로 현 시점에서는 본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함.

나. 정책 제언

-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여러 측면에서 가장 뚜렷하게 이전 연령과 차이나는 양상을 보이는 아동 연령이 3세임을 알 수 있음. 3세 기준으로 어머니의 근로 행태가 바뀌고 이에 따라 가구 수입이나 지출 구조가 달라지며, 또한 아동을 돌보는 지원자나 시간, 비용 등등이 달라지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2세 이하 영아 가정을 위한 육아정책과 3세 이상 유아 가정을 위한 육아정책에 있어 강조하고 관심을 두어야 하는 지점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함.
- 자녀를 2세 이후까지 양육한 후 젊은 어머니가 사회에 진출하게 될 때 대다수가 비정규직 또는 자영업으로 재취업을 하게 되므로, 출산과 육아가 가져오는 여성의 경력 단절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어 출산 후 정규직 재취업에 대한 기회가 더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종단 자료 분석 결과 4년간 취업모의 비율은 9.3%가 늘었으나 정규직 비율은 18.9%가 줄었음. 즉, 수치상 자녀 양육 후 재취업 여성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거의 없어 보임.
 - 출산하여 만 2세가 되기까지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느라 가정에 있다가 자녀가 3세가 되었을 때 직업을 다시 갖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요는 높으나 사실상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 자영업이나 임시직으로 전락함을 종단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음.
- 가정의 경제구조에 대한 분석은 자녀 3세를 기준으로 자녀와 관련한 지출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어머니 취업이 가정 경제상으로도 요구됨을 알 수 있음. 즉, 어린이집 이용이 원활할 수 있는 만 3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 및 근로 정책이 함께 지원되어야 함.

- 3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 가구지출의 40%가량이 자녀 양육비로 지출됨(모든 자녀 수 포함). 2세 자녀 가정이 총 지출 대비 16%였음과 대조적임.
 - 2세에 비해 3세에는 어머니가 자녀를 전적으로 돌보는 비율이 확연히 줄어들고 전체의 81.4%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유아 어머니의 안정적인 사회 참여 기회가 높아짐과 동시에 유아 보육 인프라는 충분히 갖추어져야 할 것임.
- 본 연구의 종단 데이터는 자녀 3세를 기준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 자녀 연령과 취업여부 등 처한 환경에 따라 어머니에 대한 사회의 심리적 지원의 초점을 다르게 두어야 함.
- 자녀 2세 시기에 비해 3세 어머니는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고 심각한 정도의 우울증 비율이 높은 반면, 자아존중감 점수도 높게 나타남.
 -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취업한 어머니가 증가되거나 성장해가는 자녀의 모습과 관련하여 자신의 높아가는 생산감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것일 수 있음. 그러나 이 데이터는 그렇지 못한 어머니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고 심각한 우울감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결혼만족도 점수에 있어 3세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낮고 부부 갈등 점수는 높아짐. 어머니와 아버지의 비교에서는 어머니가 훨씬 결혼 만족도가 낮음.
 - 이같은 결과를 볼 때 부모교육이나 지역사회 내 상담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 어머니가 처한 환경과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부부가 함께 부모교육에 참여하여 상호 심리적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하게 하고 특히 어머니의 우울감 관리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사회 전체가 함께 강조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캠페인 등을 장려하는 사회 공동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여전히 필요함.
- 예전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율이 높아졌다는 일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주말에도 어머니에 비해 절반 정도의 시간에만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자녀 2세에 비해 3세 시기에는 아버지 참여 시간이 50여분이나 많아진 분

석을 볼 때, 아버지는 영아 자녀 돌봄보다는 유아 자녀와 놀아주기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남. 부모 교육의 측면에서 영아 아버지에게 영아 자녀를 돌보고 놀아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이는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임.

- 현재 일부 직장에서처럼 정시 퇴근을 강조하는 육아데이나 패밀리데이 등을 한 달에 한 번 두는 등 형식상 운영에 그치지 말고, 사회단체나 지역사회에서 가족참여, 부모교육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가족의 날을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봄.

참고문헌

김은설·도남희·왕영희·송요현·이예진·정영혜(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육아정책 연구소.